

중국 상업은행의 프라이빗뱅킹(PB) 발전 현황 및 향후 전망

1. 개요

□ 최근 중국 은행업계에 프라이빗 बैं킹(Private Banking, PB)¹⁾ 열풍이 불고 있음.

- 지난 2006년 3월 시티뱅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PB 업무를 개설한 이후 여타 은행들도 PB 업무를 시작

- 특히 2008년 상반기 중국 은행들의 PB 업무 개설이 가속화

· 2008년 3월과 4월 HSBC, 교통은행(BOCM), 공상은행(ICBC), 동아은행(BEA) 등 주요 은행들이 PB 업무를 시작

□ 전문가들은 PB의 발전이 중국의 경제 및 금융업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

- 중국의 신흥 부호는 이미 상당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중국 PB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큼.

1) 프라이빗 बैं킹: 부유층을 대상으로 예금관리, 투자자문을 비롯하여 법률, 세무컨설팅, 유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

- 또한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PB를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 부문의 발전에 주력

- 향후 중국 PB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아직까지 중국 PB는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

- 금융서비스의 혼합경영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PB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.

2. 최근 중국 내 PB 발전 현황

- 2007년은 중국 PB 시장 형성의 원년(元年)으로 불림.

- 중국 은행업계 내 PB는 2006년 3월 시티뱅크의 PB 업무가 최초

- 2007년 3월 중국은행(BOC)이 스코틀랜드왕립은행(RBS)과 합작을 통해 중자은행 중 처음으로 PB 업무를 시작

- 이어 6, 7, 8월에 각각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초상은행(招商银行, CMB), 중신은행(中信银行, CCB)이 연이어 PB 센터를 설립하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PB 업무를 시작

- 2008년 상반기에 들어서 중자은행의 PB 진출이 가속화

- 중앙재경대학 은행연구센터의 귀텐용(郭田勇) 주임은 2008년 들어 중자은행의 PB 부문 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,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

- 교통은행이 상하이,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PB 센터를 설립(2월)

- 공상은행이 상하이, 광저우에서 PB 업무를 시작(3.27)
- 중국은행은 PB업무 영역을 마카오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, 초상은행은 상하이에 새로운 PB센터를 설립하였음(3.28).
- 광대은행(光大银行, CEB), 민생은행(民生银行, CMBC) 등 민영 중자은행도 상반기 내 PB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

□ 주요 외자은행의 PB 진출도 매우 두드러짐.

- 시티뱅크, 도이치방크 등 기존 PB 업무를 보아오던 외자은행들은 업무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, 여타 외자은행들도 앞 다퉈 PB 부문에 진출
- HSBC의 리차드 요크(Richard Yorke) 행장은 중국 내 PB 센터 설립을 발표하면서, 비교적 젊고 리스크 선호도가 높은 중국의 청년사업가를 주 대상으로 하여 PB 업무를 개진하겠다고 밝힘(3.31).
- HSBC는 PB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중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.
- 기존에 대중형 은행으로 인식되어 왔던 동아은행 역시 PB 업무를 시작(4.24)
- 동아은행은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외자은행 중 하나로써 계좌개설 최저 한도가 여타 외자은행에 비해 낮고 중국 내 점포망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‘대중형 외자은행’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음.

□ PB의 최저자산 요구수준은 은행들마다 다르지만, 대개 100만 달러가 기준

- 시티뱅크와 교통은행이 각각 1,000만 달러, 200만 달러의 최저자산 기준을 정했을 뿐 여

타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100만 달러 혹은 800만 위안 정도를 최저 기준으로 제시하여 세계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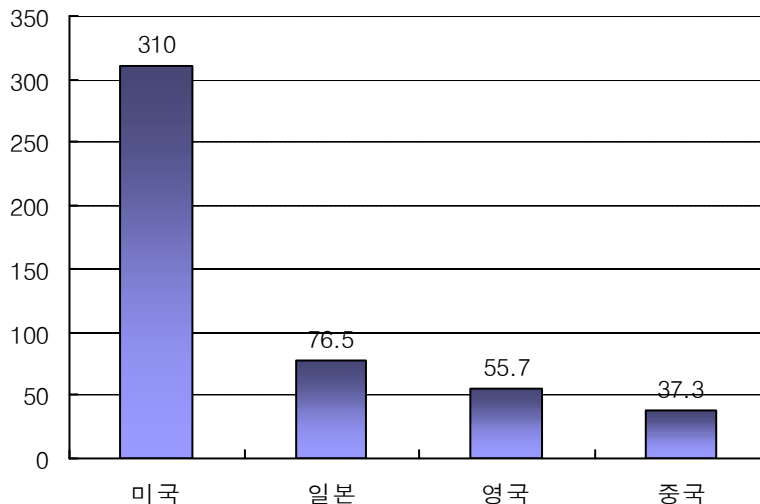
- PB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 은행들과의 경쟁을 감안해 최고 부유층보다는 중간급 부유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임.

3. 최근 중국 내 PB 발전의 주요 원인

- 중국의 신흥 부호는 이미 대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PB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.
- 골드만삭스(Goldman Sachs)의 수석경제학자 량홍(梁红)은 향후 10~20년 사이 중국 부호의 성장속도는 세계 최고일 것이며, 이에 따른 PB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
- 2006년 메릴린치(Merrill Lynch)와 캡제미니(Capgemini)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“World Wealth Report 2006”에 따르면, 2005년 말 기준 중국 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대형 부호는 약 32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산은 약 500만 달러
-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백만장자는 연평균 20~30%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.
- 순자산이 3000만 달러를 넘는 슈퍼 부호도 약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.
- 2007년 10월 보스턴 컨설팅이 발표한 보고서 “World Wealth Report 2007”에 따르면, 중국 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가정은 2001년 12.4만 가구에서 2006년 31만 가구로 확대
- 보고서는 중국의 백만장자가 2011년이 되면 60.9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
- 2008년 4월 21일 시티은행 P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2007년 말 기준 중국 내 100만

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는 전년 대비 14% 성장한 37.3만 명

<그림 1> 2007년 세계 주요 국가의 백만장자 수 비교
(단위: 만 명)



자료: 《中国经济网》, 2008.4.22

- 또한 중국의 부호는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, 선전 등 4개 도시에 거의 절반 이상 집중되어 있어, 시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PB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

□ 많은 은행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PB업무를 강화

- PB의 수익성은 일반 소매금융업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.
- 금융업계의 소위 '2-8 법칙'에 따르면, 20%의 상위 고객이 80%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함.
- 초상은행의 탕즈훙(唐志宏) 부행장은 최근 미국 PB 업무의 연평균 수익률은 35%, 이윤 성장률은 12~15%에 달해 일반 소매금융업무의 수익률을 크게 초과한다고 밝힘.
- 교통은행 은행관리센터의 쉬하오(徐浩) 부주임은 2007년 말 교통은행의 부호 고객이 새로 유치한 자산규모는 1597억 위안으로 총 신규 유치자산의 92.7%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부유층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

- 뿐만 아니라, PB 업무는 대부분 장기예금이라는 점에서 은행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.
-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상업은행들의 주 수익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PB가 될 것으로 예상
- 특히 올해 들어 중국정부가 은행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, 은행들은 PB 업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.
- 기존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순익의 대부분을 이자수입에 의존해왔으나,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예대마진만으로는 순익을 내기 어려워짐.
- 이에 중국 상업은행들은 소매금융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PB 업무에 주목하게 됨.
- 귀텐용 주임은 2008년 상반기 PB의 발전은 중국 상업은행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

4. 중, 외자은행의 경쟁 구도 및 발전의 제약 요인

- PB 부문에서 중자은행, 외자은행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.
-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의 은행장 푸젠화(傅建华)는 외자은행과 차별화되는 중자은행의 가장 큰 우위는 현지 시장 및 고객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
- 또한 판시(关系)가 중요한 중국 사회에서, 기존에 중자은행과 거래하던 중국 부호들은 PB 서비스 역시 같은 은행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음.
- 외자은행의 경우 PB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어 1) 서비스가 체계적이고, 2) 관리경험이 풍부하며, 3) 세계 각지의 지점들을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

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.

- 특히, 외자은행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는 중국 신흥부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.

□ 그러나 중, 외자를 막론하고 현 중국 은행업계에는 PB 발전에 불리한 요소가 산재

- 우선 PB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음.
- HSBC 아시아지역 행정총재 왕이지(王以智)는 현재 유럽, 미국 등 PB 선진시장에서 주 고객층이 대부분 부호 3, 4세대이기 때문에 PB문화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가 높은 반면, 중국 내 부호는 대부분 1, 2세대로 아직 PB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
- 현재 중국의 PB는 최저자산기준이 높을 뿐, 실제 서비스에 있어 여타 금융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고객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움.
- 국내 금융법규의 규제로 인해 해외의 경험 및 상품을 인용하기가 어려움.
- 현재 중국은 은행과 여타 금융서비스의 혼합경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범위가 제한되어 PB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.

5. 평가 및 향후 전망

□ 중국의 PB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
- 공상은행 금융시장 총경리 쉬즈홍(徐志宏)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프라이빗 뱅킹 업무가 중국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.
- 스탠다드차타드은행 PB의 피터 프레벨(Peter Flavel) 총재는 향후 5~10년 사이 중국은 차

타드그룹 최대의 PB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

- 한편, 상하이 국제금융학원의 루홍권(路红军) 원장은 현재 중국의 PB는 여전히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,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

□ 중자은행, 외자은행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.

- 중국의 PB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역사가 짧아 아직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
- 동아은행 PB의 타오창위(陶昌宇) 총경리는 현재 PB 부문에서 중자은행과 외자은행이 취하고 있는 전략에 큰 차이점이 없어 누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
- 중국 부호의 특성에 적합한 PB 서비스를 누가 먼저 제공할 수 있을지가 경쟁의 관건

□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중국의 PB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고객 자산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관건이 될 것

- PB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제약, 즉 금융 서비스의 혼합경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- 시난재경대학(西南财经大学) 신탁 및 자산관리 연구소의 리야오션(李要深) 연구원은 신탁, 보험 등과 은행업무의 혼합 경영이 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PB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
- 그러나 탕즈홍(唐志宏) 부행장은 PB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임을 강조하며, 파생상품교역이나 신탁 업무에 제한이 있는 중국에서도 PB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

· 민생은행의 왕통스(王滂世) 행장 역시 PB의 발전은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달려있다고 언급하여 관련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

□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PB의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며, 중국 은행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

- 푸젠화(傅建华) 행장은 PB업무가 중자은행 업무발전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평가

- 흥업은행(兴业银行) 자금운영센터의 천스용(陈世涌) 총경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 관리업무가 현재 중국 상업은행 자금운영업무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었다고 평가

<참고 자료>

《中国经济网》, “私人银行—银行业发展的新起点”, 2008.3.26

《每日经济新闻》, “中资行结队涌入私人银行”, 2008.3.28

《经济参考报》, “国内商业银行进军私人银行领域在掀高潮”, 2008.3.31

《北京商报》, “中外资银行加速抢滩私人银行业务”, 2008.4.1

《理财周刊》, “私人银行势头热制约多”, 2008.4.21

《理财周刊》, “汇丰中国私人银行紧盯年轻老板”, 2008.4.21

《中国经济网》, “信贷危机对富豪影响甚微 中国高净值人数达到37万”, 2008.4.22

《第一财经日报》, “平民外资银行狩猎内地富家”, 2008.5.1

《小康·财智》, “私人银行：财富管家”, 2008.5.22

(자료정리: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박사과정 이은경)